(재)서울시복지재단 공고 제2021-20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2022년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 기관 공모사업 안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악성부채 확대예방, 가계부채 규모관리,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22년 악성부채 확대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센터 방문이 어려운 서울시민을 직접 만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증진을 위하여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 공모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1년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 기관 공모사업

※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 지역센터 이외의 곳으로 금융복지상담관이 정기적으로 출장나가서 진행하는 현장형 금융복지상담 (단순 일회성 및 행사성격의 출장상담은 제외)

2. 사업 목적

○ 빚으로 힘든 서울시민의 센터 방문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소외계층의 원활한 경제적 재기지원을 위해 지역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로 상담관이 직접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금융복지상담 업무 수행

○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민이 많이 찾아오는 유관기관의 금융복지상담 지원

3. 공모 내용

○ 공모 신청기간: 2021. 9. 1. ~ 9. 24.(3주간)

○ 사업 운영기간: 2022. 2. ~ 12.(11개월)

○ 사업 운영방식: (센터)상담관 1인 정기출장/(신청기관)상담장소 제공 및 사전접수 등

○ 신청대상: 서울시내 자치구청, 고용복지+센터, 주거복지센터 등 업무 유관기관

○ 접수방법: 공문 접수

4. 제출 서류

○ 제출서류: (구청·공공기관)공모사업 신청서 1부(별도양식)

(민간기관)공모사업 신청서 1부,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양식 외 다른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　　의: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이주희 주임(02-6353-0484)

5. 추진 일정

사업공고	→	신청접수	→	현장확인 및 심사	→	선정발표	→	약정체결	→	사업 진행
9.1.(수)		9.1.(수) ~9.24.(금)		9.27.(월) ~10.7.(목)		10.13.(수) (예정)		12.8.(수) (예정)		2022. 2월~12월

※ 상기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심사기준 및 결과 통보

○ 심사 기준: 사업 효과성, 상담 편의성, 기관 협력도, 사업 기대효과 등

○ 심사 방법: 센터 내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필요시 별도 현장확인)

○ 선정기관 발표 : 2021.10.13.(수) 예정

※ 서울시복지재단 및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7. 기타사항

○ 신청과 관련한 세부 부대사항은 신청서 유의사항을 참고바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021. 9. 1.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붙임자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현황 1부. 끝.

〔붙임자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현황

서울시민에게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있습니다.

☐ 가계부채 위기해결을 위한 서울시민의 비상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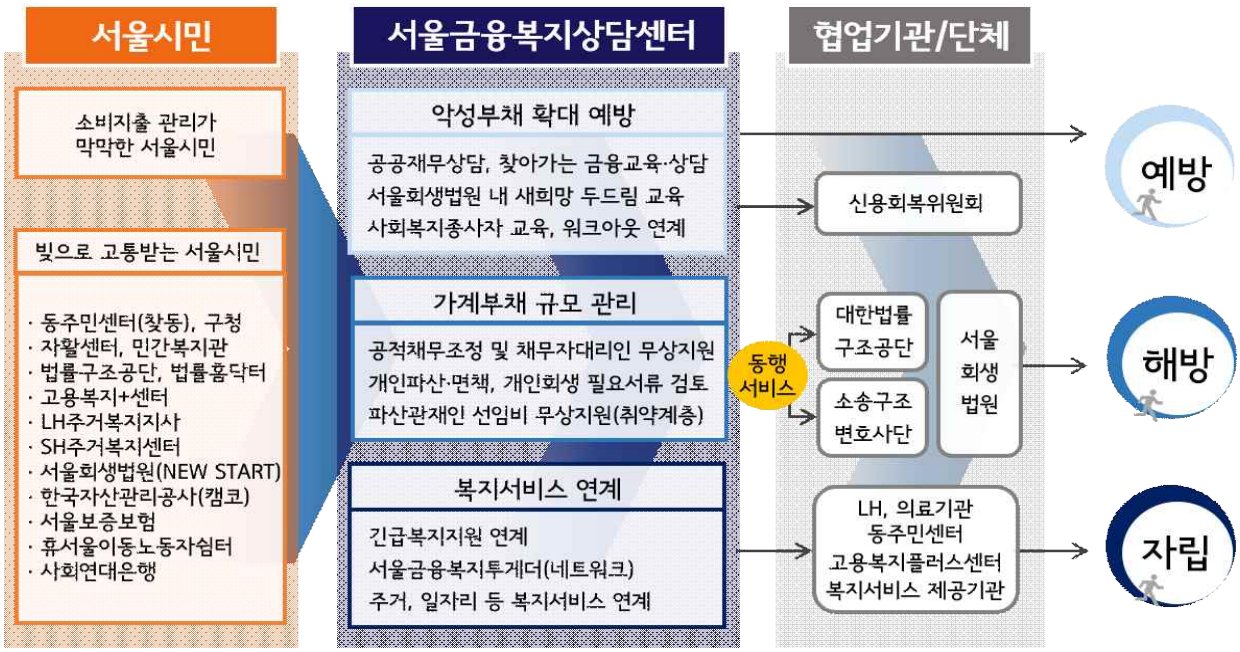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 일반현황

- 인력: 정규 36명(행정지원 6, 금융복지상담관 30), 개소 시 6개 → 현재 15개 센터
- 구청(9), 고용복지+센터(3), LH 등 공공기관 내 14개 지역센터(각 2명) 위치

○ 사업내용: 가계부채 위기를 복지적 해법으로 접근한 서울의 혁신적 모델

- **예방** 재무상담, 찾아가는 상담·교육 등 **악성부채 확대예방**
- **해방** 공적채무조정 지원을 통한 **가계부채 규모관리**
- **자립** 빚으로 넘어진 시민이 다시 일어서기 위한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 실적과 성과('13. 07.~'21. 07.)

○ 악성부채 확대 예방: 가정경제 악성화 예방

- 42,147명 서울시민에게 재무상담 등 159,828건 상담솔루션 제공
- 찾아가는 금융교육, 찾아가는 금융상담, 서포터즈 등 다채널 시민접점 확대

구분	방법(대상)	2019.		2020.		2021.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	법원, LH남부, 고용복지+센터 등	223회	645명	143회	250명	106회	252명
찾아가는 금융복지교육	법원, 자활센터, 구청, 민간복지관 등	88회	7,684명	50회	4,426명	24회	353명
금융복지 서포터즈	사회복지종사자, 사회복지전공생	7회	346명	6회	145명	3회	110명

○ 가계부채 규모 관리: 가계부채로부터 해방

- 8,272명(파산 7,929/회생 343) 악성부채 2조 837억 원 법률적 면책 지원
- 서울회생법원, 법률구조공단 및 소송구조 변호사(6인) 우호적 협조체계 공고화
  - 서울형 Fast Track 운영(센터 경유 신청사건은 법원에서 일정표식을 붙여 신속처리)
  - '17.부터 매년 서울회생법원 연간 개인파산사건 10%를 센터 경유 신청사건이 차지
- 채권추심 압력으로부터 채무자보호를 위한 채무자대리인(변호사) 지원 '21. 20명('20. 66명)

○ 복지 포함 서비스 연계: 빚으로 넘어진 시민의 재출발, 자립

- 3,782건 주거, 일자리, 법률, 의료, 금융(워크아웃) 등 서비스 연계
- 자치구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복지 네트워크 참여 및 협력기관 간담회 '21. 91회
- 재무·법률·복지 역량이 융합된 금융복지상담관의 공감(rapport, 라포) 형성 상담
  -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서울시출연기관 시민(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3년 연속 우수

서울시 평균	2017.	88.3점	2018.	89.2점	2019.	87.2점
센터 평균		93.7점		95.6점		92.8점

  - 구청장, 시장님에 대한 감사편지, 서울시「칭찬합시다」게시판 등 시민 감사글('21. 21회)
- '15.부터 지자체가 서울형 모델 벤치마킹, '20. 현재 전국 15개 금융복지센터

2020. 주요 활동

개인도산 필요서류간소화 중랑구 업무협약

중랑 및 노원센터 상담친화적 물적환경개선

개인회생지원 위한 다시시작(ReStart) 사업개시

금융취약계층 발굴 위한 안테나사업(SH임대고지서)